

인문학의 조심스러운 프리포즈

국사학과 신지환

◆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상상하게 된 것

연상 퀴즈를 풀어가는 느낌

교재의 3장과 4장을 읽으면서, 마치 연상 퀴즈를 해가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자면 유비추론. 두 개의 비슷한 개념을 가진 요소들이 차례차례 연결되어 발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시작은 부울 대수와 스위치의 접목이었다. 연결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가지 개념들이, 사실 완벽히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둘의 연결에서부터 위대한 탄생의 서막이 오를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는 튜링 기계가 가진 기계의 중력과 람다 계산법이 가진 람다의 중력이 존재한다. 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언어와 논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중요한 사실의 발견이 뒤따른다. 언어로 짠 프로그램과 논리로 짠 증명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또 한 번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다.

비슷한 두 가지 개념을 연결시키는 ‘유추에 의한 연상 작용’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쾌감을 제공한다. 인간이 하나보단 둘이기를 갈구하고 자신과 타인의 공통점을 발견할 때 기뻐하듯, 하나의 관념이 유사성을 바탕으로 다른 관념으로 전이되고 그 둘의 긴밀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똑같이 희열을 느낀다. 그 희열이 컴퓨터과학이 발전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감정적 원동력 아니었을까.

‘직관’의 거대한 존재감

‘직관’은 최근 AI의 대두와 더불어, 인간이 AI에 비해 지닌 최대의 장점으로 많이 언급된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직관을 ‘컴퓨터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알고리즘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친구 ‘직관’이 버젓이 동원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역시 선택의 기로에서 절대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겠다고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구나. 컴퓨터 역시 필요할 땐 직관에 의한 ‘통밥’을 활용하는구나.

나름 분석해보자면, ‘직관’ 역시 이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객관적 주관’이다. ‘느낌’이나 ‘Feel’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기엔 보이지 않는 근거를 많이 가진 도구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직관에 의한 판단에 우연적 요소가 많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우연’보다는 ‘개연’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기에 컴퓨터에서도 직관이 나름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데이터의 시대, 논리와 언어는 인문학의 주 종목

기계의 중력과 람다의 중력에 뒤이어, 최근에는 확률추론 프로그래밍에 기반하고 있는 ‘데이터의 중력’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기계의 중력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고,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HW2

람다의 중력이 논리로 증명을 한다면, 데이터의 중력은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만든다. 데이터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현실의 현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른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한 현재, 1)확률추론 프로그래밍이 현상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 그 꿈이 나에게도 생겼다.

컴퓨터가 일상에 나타난 현상의 이유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컴퓨터는 인문사회학과 다시 한 번 한층 가까워진다. 사람의 섬세한 선호와 동기, 감정까지 컴퓨터가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SNS나 기업들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선호를 알아내고, 그것에 맞게 정보와 상품을 제공한다. 이것이 이제는 인문사회학의 학문 분야로까지 넘어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의 유명한 OST 구절이 떠오른다. 인문사회학이 컴퓨터에게 보내는 조심스러운 프러포즈. “너를 사랑해도 되겠니? 우리 시작해도 되겠니?”

<참고자료>

-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1) 이광근,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 인사이트, 2015, 201p.